



## 사설

## 10년 역사, 4기 출범한 한총련

젊은 가슴이 정의를 찾는 것은 권리요. 의무다. 이땅 혼란과 모순의 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은 젊은이로 사회의 변화를 꿈꿨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했다. 특히 저연인임을 자처하는 대학생은 시대의 암울함이라는 의무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런 청년의 사회변혁운동의 의지를 뮤어 세우고 조직적으로 응집해온 것이 한총련이다. 시대의 요구였던 한총련은 사회변혁운동의 선두에서 광활한 투쟁을 벌여왔다. 군부 독재도, 광주항쟁 진상규명, 반민족 시대의 어둠에 거려진 진실을 외쳤고 그 결과로 광주를 앞당겨서 한총련이 있다.

반전 이데올로기야 써여 숨 죽일때 통일을 외쳤고 온애로운 나라로 미국을 인식할 때 그 허구성을 꾹꾹 눌러 밝이 외친 한총련. 또한 그동안 광복만이나 많은 고생을 당하였다. 통일을 외쳐 천복을 공세력으로 몰리고 수 배반과 부정한 권력의 타도를 외쳐 구속당하였다. 이런 한총련의 역할은 젊은 암울함으로 광복과 자본의 갑론장을 찾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혁의 선두로는 서는 것이다.

지난 28일까지 29일까지 30일간 전선에서는 애 모임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제4기 한총련 출범식이 있었다. 87년 전대회에서 90년 제4기 한총련에 이르는 10년의 역사와 그 시대를 자처하는 세대에서 유례없는 학생운동조직으로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4기 및 한총련의 의의와 역할은 그다음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0년간 외친 한총련의 의의를 들었고 미국의 일상이 일상기지 시작한 지금, 많임없이는 부정한 경관과의 부정, 자주와 평일의 길로 가열차게 달려야 할 것이다. 노수석으로서 시작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의 모순으로 죽어갔다. 이제 그 열사의 의지를 이어받고 전대회, 한총련 10년의 자랑을 역사로 짚어보기 시대의 암울성으로 우뚝 설 날을 윤리 4기 한총련에 든든한 믿음을 보낸다.

## 폐지돼야 할 5·31 교개안

작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계획', 정 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이하 5·31교개안)이 1년을 맞았다.

언론에 의해 '교육혁명'으로까지 불리워졌던 5·31교개안,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민생통치안인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통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5·31 교개안이 내세우고 있는 근본 취지, 일안· 확장· 발포된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은 출발한다. 5·31교개안에 의해 교육은 절차화· 정권의 논리에 부합되고 자본의 논리에 통합되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에 교육은 상품으로, 학생은 학부모들은 교육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라는 구호속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인 교육이 일부 정치가들의 대중조작술에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면기 어렵게 한다.

나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전국대학에 품성을 잊으려는 학부제, '자율화'라는 당근과 함께 '재정'이라는 채찍으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모습을 전면 드러내고 있다. 학부제는 밀수정으로 하나 구상원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평소적으로 도입되며 교수총동문제, 대학강의의 속출, 대학연제 문제, 불과 등 현재도 신제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와 위상이라는 학부제가 대학을 또다시 형태로 폐쇄화시키는데 일 조하고 있는 것이다.

9년부터 시작된 대학총합평가(인정제) 또한 미친기지다. 대종편으로 각 대학은 무한경쟁에 몰리고 그 여파로 수많은 장단기 발전계획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은 거쳤는지, 그 계획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설정계획과 재정화정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회의적이다. 그 재정마련이란 명목에 등록금 또한 청진부지를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5·31교개안 1주년 맞아 대학에 투영한 5·31교개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려한다. 윤강 회의한 미사여부로 교육의 유토피아를 제시한 5·31교개안이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직접 눈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다.

## 흡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담당하고 주장하는 외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면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니다.

원고와 같은 내용은 글 모임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 용인 학생기자실로 올립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ODEA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잘못된 성문화, 그

## 본질을 알자

통화버스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여성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노력해온다. 이번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의 성문화를 돌아보기도 했다. 지금의 성문화가 많이 잘못되어 있고 외곡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 버스안 성추행 사건과 음식점 사연도 현실의 한 예다. 그러나 이를 대하고 해결하는 총여성의 태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흥여는 도서관의 대화플랫폼에 '성추행'이라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노력해온다. 이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의 성문화를 돌아보기도 했다. 지금의 성문화가 많이 잘못되어 있고 외곡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 버스안 성추행 사건과 음식점 사연도 현실의 한 예다. 그러나 이를 대하고 해결하는 총여성의 태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다. 하지만 성문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된 이상 여여성들의 문제도 제기했어야 한다.

난씨가 더워지고 있다. 노출도 늘어간다. 안 보면 뭘지 아니하고 할지 모른지만 대자보와 이성보다는 본능은 앞선다. 자신에게 심한 노출과 이한 태도 등도 일종의 성폭력이다. 현상만 보면 그 자체로 뭘지 모르겠다. 대학마다 여러 행사가 있다. 일정 신강의 등이라면 그 행사는 '공화관'이 더 어울릴 것이다.

'공화관'의 단생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공대생들이 원하는 건 커다란 것이다. 최근 곳에 우리의 생활을 인정받고 아래로는 외인과 외래인으로 더해지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랄뿐이다.

일정국(전자제어공학부 1)

## 아쉬운 남긴 청소년 음악회

5월 21일, 정오가 지난면서부터 그 화려한 면모를 흐리게 만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휴강되자마자 페쓰고, 선생님은 제발 30분만이라도 수업하지마자 사정하시는 오묘한 대처상태에서 정신이 되어버렸다. '청소년 음악회'로 외대의 거의 모든 학생들과 이문동 주민들, 인중 학교 학생들이 하루종일 아니, 본관 육상에 애벌면이 됐던 날부터 들을 수 있었다. 노후화가 시작되자 전, 프로그램 사전 진행요원의 국심스런 요구는 그렇게 기다리던 슬리드의 이준수와 같은 간 나조자 같아졌다.

'여기 중학생 손 들어봐.' 그러자 무대 한쪽 떨어진 곳에 자리를 배정됐던 학생들이 신나게 손을 들었다. '너네들, 시끄럽게 소리지르면 다 쫓아낼까?' 과연 이 프로그램 '청소년 음악회' 맞아? 원활한 환경만을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친구하고는 은근히 이해해 줘야 하나?

음악회를 지켜보고 있었던 외인이었다는 외국인 교수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칭찬하는 모습, 기존 노래가사를 (외래라는 이유로) 영어로 바꿔부르는 모습, 유령한 동문선배들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외대이기들에 미상 호통에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외대의 현

도영복(서학·리사이어 2)

## 신강의동을 공학관으로

내가 '외대'라는 또 다른 사회에 들어온지도 3개월을 넘어섰다.

'외대'라는 큰 이름이 내 이름 석자



## 평수당

## 교육개혁 유감

학생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고등 교육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 나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흑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흑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그 실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풀었던 기대를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길로 교육계는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그렇다. 대학입시제도

도 개편 바뀌면서, 대학의 체제

과 교육화, 그리고 경쟁방식도 바

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

교과과정 운영은 파행을 멈추지

않고, 외과의는 거리지 않

고, 일시적인 차별화를 멈추지

않는다. 대학들도 대학마다

의 차별화를 멈추지 않고, 대학마다

## 사 회 보 도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성과와 과제

# 사천만 민중의 품에 안기는 한총련

## 대중성 확대·단결투쟁·현실적 방법 과제로 남아



대학시설, 누구의 가슴에서 아직 단정한 목표를 안겨주기에 이른다. 이렇게 내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기 있다. 바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다. 올해는 한총련과 그의 전신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간신힌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학생운동을 역설하는 전대협 단행시기 보다 월천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번 정점을 이뤘던 학생운동은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잠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 광주는 '미국에 의한 자주권'과 '민족위에 굽힐 수 없는 권리'로 존재한다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으로써 학생들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안겨주기에 이른다. 이렇게 내용의 발전을 거듭하던 학생운동은 86년 전대협장(에국대학부정연대·결성사건)을 통해 기층 학생들에 귀거하지 않은 부정의 무모함과 전국적인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교운이 87년 전대협을 결성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다.

전대협 시기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 회의 민족화와 통일을 위한 단체로 정면으로 맞서서 부정의 불을 달고 그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있다. 그러나 80년 광주는 '미국에 의한 자주권'과 '민족위에 굽힐 수 없는 권리'로 존재한다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전대협 6년은 민주화·통일을 위한 '부정의 구심점'로서 역할을 특화해 레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대협은 날로 변화하고 다 임해가는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한총련으로의 전환이다.

93년 탄생한 한총련의 첫걸음을 거리에서 일어났다. 한총련은 일단 합한 것은 실천을 통해 검증하는 시기였다. 한시기의 이런 논쟁과 이전 역시 합의 수 있는 것부터 살피고 이후에 나오는 오픈화에 대해서는 넘나드는 비판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전에는 기존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5·18별법 제정운동에서 보듯 누구나 공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부정의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정화해 꿈틀여 보고자·민주·통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개혁 차원에서 노동자·농민·빈민과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대의 강화를 이루는 헤아리로 의미가 깊은 것 같다. 작년 5월 학자·차별에서 올해에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미국 반대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문화행사가 더해지고 재미있어졌다.

유달상(순천대 축산화과 3)

한총련에 바라는 것은?

부정현장에서뿐 아니라 통신매체들에서 만나았으나, 언제나 한총련의 조직원이라는 걸 느껴봤으므로 한다.

권동숙(충대 2)

북한의 수혜피해에 대한 생각은 우리 정부는 수입을 들여오지 말고 그 돈으로 굽죽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으면 한다.

·강미자(순천대 피아노과 1)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한 생각은 제 2차 교육개혁안은 개인으로 흐르고 있다. 신 교육개혁안은 내세워 충신의 노령수로 사용한 제 2차 교육개혁안 폐지야 한다.

·송경희(안남대 정 치과교 1)

최근 정부의 신노정정책에 대한 생각은 OECD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정지초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식화되

인 면에 그칠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바로 잡아라도 할 게 많은 것 같다.

·류지영(단국대 경영학과 2)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는 연방제 통일이나 그냥의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서로의 사상을 인정하고 백을 허물고 서로 도와 순종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대 95학년 남궁생

한총련에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것 같다. 조급한 성과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학우들과의 경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인가? 한총련이 충실히 4기 출범을 했지만 그동안 학우들이 경쟁하고 힘들어하는 것인가? 한총련이 충실히 4기 출범을 했지만 그동안 학우들이 경쟁하고 힘들어하는 것인가?

·고상희(한국교원대 3)

기타 질문

최근 열사장국에 대한 견해는 소중한 죽음이다. 이러한 열사들이 있기에 투쟁의 맛이 제시될 수 있고 소속감나니 결속력이 생기게 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회분과 공동기자단

# 한총련 투쟁본부 발족

## 열사정신 계승…반미·반김 실천할 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 미자막판이 22일(토) 전대협 대문동에서 서는 '대신자금 공개, 오월 학살자 원전 청탁, 교육정책화보를 위한 한총련 투쟁부문'이 있었다.

김인중원 의장인 김경수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후 각 지역총련 의장단의 투쟁경과가 있었다. 이후 김인중원 노재관 '전시기'와 문예공연과 한국蹲신松 이강을 겸복자구 위원장이 나와 연대사를 했다.

한총련 투쟁부문 본부장인 정명기 한총련 의장은 '김영삼 정권은 총체적 비리 정권'이라며 규탄하고 '김영삼 정권을 광작하여 끝나리라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총련 투쟁부문 본부장인 정명기 한총련 의장은 '김영삼 정권은 총체적 비리 정권'이라며 규탄하고 '김영삼 정권을 광작하여 끝나리라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총련 투쟁본부는 특히 열사장국에서 학생들이 슬퍼하는 향으로 투쟁을 조직화하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던 점을 펼기 위한 기초화로 한다.

또한 한총련은 전시기와 함께 계획을 구축하여 한 열사장국에서 학생들을 퇴장을 차단하고 학생회와 평화연대 체계를 확립하는 한총련의 첫걸음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구축하여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이미 각학교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구축되었으며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탁과 원전 청탁을 갖는다.

한총련본부는 전시기와 지역총련으로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총련의 청









# 10년 전대협·한총련이여



애국 전북대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의 학생운동조직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지난 5월 23일(목)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제4기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대는 학관 건물을 플래카드로 놓는 등 세심한 대회준비로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투쟁으로 애국하는 한총련 백만학도여...

지난 5월 24일(금) 한총련 출범식 대회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경기(전남대 총학생회장) 군은 난현 사회모순의 근원이자 광주항쟁 무력진압을 승인한 미국의 전상규령·공개사과와 민의를 저버리는 김정일정권의 타도를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의 투쟁을 결의하며 선언했다.



내일을 여는 웃음

밝게 웃는 젊음, 한총련 행사기간에 무척이나 많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바로 어기모인 이들이 꿈꾸는 내일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을 짐짓 만족스럽게 내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청사진 이었다.



만나야 한다

이번 한총련 행사에서는 민족의 삶을 끌어낸 미술품들이 청중 되어 학생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전은 행사기간 전시된 미술품들 중 통일의 꽃을 담은 한 작품이다.



마징가 Z 도 국보법은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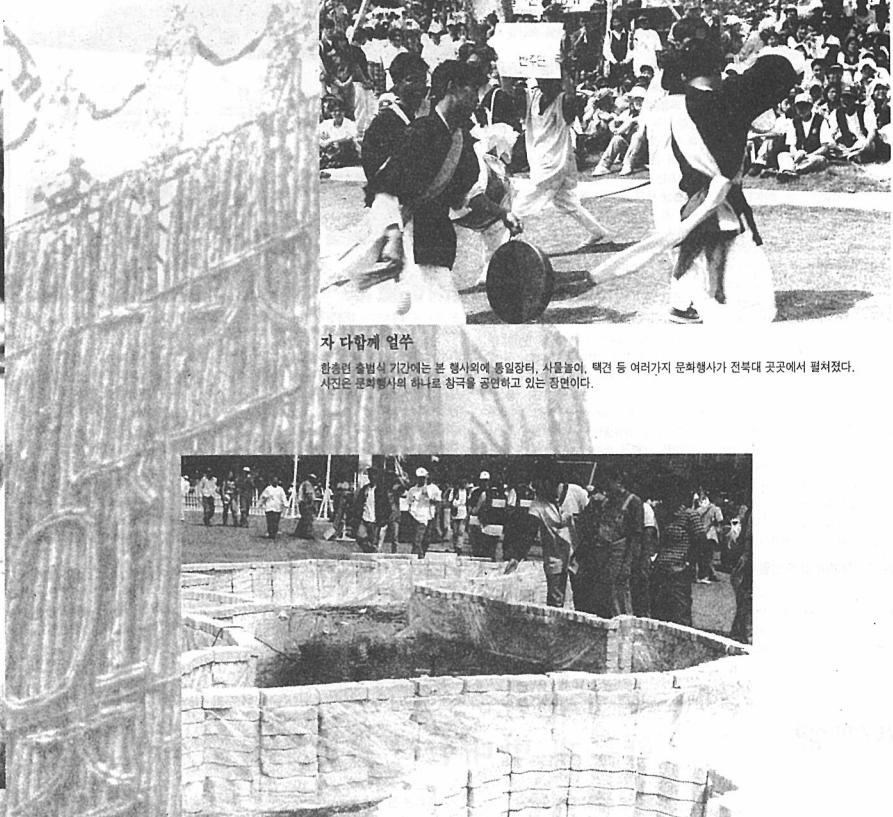
전국학생점거연합에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법임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독특한 조형물.

# 이제 4천만의 숨결로 피어나라



이만하면 잘 왔다 그지

이번 한총련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검연, 동일풀꼬기), 익차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고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사진은 참승격기에 참가한 한 여학생의 진지한 모습이다.



자 다 함께 열주

한총련 축제 기간에는 본 행사와 틈틈장터, 사물놀이, 택견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전북대 곳곳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문화행사의 하나로 청국을 공연하고 있는 장면이다.



통일의 마음답아

전북대 한성회관 앞 광장에 설치된 인공분수, '통일분수'라고 이름 지어진 한반도 모양의 인공분수에 한 학생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증을 던져넣고 있다.



으아. 시원해

출범식 기간의 날씨는 절은 일기와 더불어 무척이나 더웠다. 대회 둘째날 부문별 결의대회를 마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운동장 옆에 임시로 설치된 수도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열사의 걸 따라

전주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서로로 상경한 서울대학 축성학부 소속 학생들은 권희정 열사 49제를 치르기 위해 성신여대로 향했다. 49제를 마친 후 서울편 소속 학생들은 서울 도심 광장에서 '대선자금 공개, 교육체험복보'를 외치며 거리시위를 나섰다. 사진은 권희정양을 기리는 플래카드와 깃발이 걸려있는 현수막 거리를 거쳐 성신여대로 달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배경으로 쓰인 사진은 전대합·한총련 10년을 기념하여 전북지역 9인 학우들이 모른 8만기의 강통으로 만든 길이 10m의 기념길이다. 집단 예술의 국적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 사진부**

□ 5·31 교육개혁안 1주년을 생각한다 ① 학부제

# “저, 고 3으로 되돌아 갑니다”

## ‘교육개악(惡)안’ 시행 1년… 되살아나는 경쟁교육

‘교육혁명’이자 지지하며 등장한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지 1년을 맞는 지금, 제2차 교육개혁안의 발표로 실체를 드러낸 ‘교육개악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퇴색시키고 학원을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학부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등으로 물살을 끌고 있는 대학의 현실에서 5·31 교육개혁안이 갖는 현재적 의미의 모색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 15년전의 오류 또 다시 재현

‘15년전에 외대가 학부제를 도입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지난 70년 본격화는 ‘편제 신화’ 부여(계에)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하고 1년동안 소속제학과와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학과의 특성과 자기획성을 확보해, 허리, 허리에 따라 2학년 전시 전공을 선택한다는 이른바 ‘실험대학’으로서 계열별 모집은 법정학부(정부·법과·법학과·생물학과·상경학부·부수학과·경제학부)에 실시했다.

그러나 시장 경쟁력을 갖춘 8년 소속제에 의한 인위적 학과 조절 3학년동안 소속학과 없이 계열별로 학과를 알아 내거나 소속감의 결과 등의 계열모집의 폐단이 두드러지며, 8년 학부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90년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인재 양성’의 수수께끼로 오픈하여 새내기 맞이 장이 되었다면 이날 본부기획과 학부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대한 신입생들의 평이었다. ‘새내기 200명 200명은 소위 어웃사이더로 불리워집니다. 많은 수업이 늘어나고 신입생들의 전공선 페디언을 놓아두고 있어 어제는 반대 여론을 끌었는데, 동아리나 도서관으로 걸어가니 되죠’라고 말하는 상경계 새내기의 모습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로 학부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학부제를 도입해 상경대는 대학에 상경계 새내기의 모임이 행해졌다. 이를 반영하는 인내대에 비롯한 4개 단체에 학부제를 도입한 세종대는 대학원문화과, 일어일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등 4대학과를 인문학부로 산학연단과 산업자연과를 회화·산학화과으로 통폐합했다.

### 잘못된 교육정책이 낳은 신입시경쟁

‘학부제는 본래 광장이 많기 때문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대학의 학부제는 광장을 살피다가보면 단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용인캠퍼스 인문학부 새내기는 말한다.

임시반으로 언어학을 전공과목으로 선택

였지만 학과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와 2학년 전공선택 부담이 그리는 새내기들의 공통된 불만을 토로하는 그는 ‘진정한 학부제를 우리에게 끌어다오’라고 학부제의 폐단을 얘기한다.

학부제와 관련한 정확한 시행세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지 ‘2학년 전공선택은 과정별 120%이며 상적으로 정하는’는 기본방침이 있을 뿐이다. 학부제 도입의사를 시사한 지난 10월말에서 별 전망이 있는 학부제 세칙은 전공을 짜르는 말을 듣고 또 다시 고3의 암울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학부제 학문의 선택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방법으로 아는에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해온다.

### 오늘 대 없는 새내기의 현실

지난 4월 30일(금) 열린 서울캠퍼스 상경대학 정기생상총회는 1,000여명의 정원 중 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학부제의 모임은 30명은 안팎이었다. 이전의 단체에 오픈하여 새내기 맞이 장이 되었지만 이날 본부기획과 학부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대한 신입생들의 평이었다. ‘새내기 200명 200명은 소위 어웃사이더로 불리워집니다. 많은 수업이 늘어나고 신입생들의 전공선 페디언을 놓아두고 있어 어제는 반대 여론을 끌었는데, 동아리나 도서관으로 걸어가니 되죠’라고 말하는 상경계 새내기의 모습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로 학부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학부제를 도입해 상경대는 대학에 상경계 새내기의 모임이 행해졌다. 이를 반영하는 인내대에 비롯한 4개 단체에 학부제를 도입한 세종대는 대학원문화과, 일어일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등 4대학과를 인문학부로 산학연단과 산업자연과를 회화·산학화과으로 통폐합했다.

### 학부제 위기, 모든 대학의 현실

학부제는 현재 전국 64개대학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와나는 모습은 비유화하고 통폐합, 새내기의 소속감 결여, 2학년 전공선택 성적순으로 배정 등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지 1년이 되었다. ‘신교육혁명’ 이런 말도 잡시 교육미저도 자본의 논리로 휘감은 것이 1년이 지난 5·31 교육개혁안의 실체이다.

의 그 폐단은 우리 대학민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양대와 신문사 대학부장 김봉여군은 ‘학부제를 실시하기 전 혼자에서 혼자로 재학생의 70%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제 실시후 교수학술성이 감사로 때우는 수업이 늘어나고 신입생들의 전공선 페디언을 놓아두고 있어 어제는 반대 여론을 끌었는데, 동아리나 도서관으로 걸어가니 되죠’라고 말하는 상경계 새내기의 모습이 이를 반영한다.

이를 반영하는 인내대에 비롯한 4개 단체에 학부제를 도입한 세종대는 대학원문화과, 일어일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등 4대학과를 인문학부로 산학연단과 산업자연과를 회화·산학화과으로 통폐합했다.

2학년 전공선택제 전면 철회돼야

97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받는 본교는

## 외대와 나

### 외적발전에 상응하는 내실 기해야

외대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20여년이나 된다. ‘100이면 강산이 변한다’ 말이 무색하지 않게 우리 외에도 그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20년전의 외대는 그 연륜으로 보아 청소년기에 속했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절 외대인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갖고 있었으나, 축직한 경험과 노후의 부족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로 인해 방황과 좌절은 많았다. 특히 신설 학파에 대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또한 그 당시 외대에는 학과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서울캠퍼스 하나에 학생수는 900여명정도의 이기자(大)학이었다. 그래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면, 서로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외대는 외적·내적으로 많이 변화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이같은 변화는 우선 외적인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의 실내는 운동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현숙한 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 발달에 상응하는 내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현숙한 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현숙한 운동

# 시행착오 속 ID카드 발급 지연

## 신입생·복학생 도서관 출입·대출 불편

올해 개강과 더불어 시행돼 온 ID카드 신규 발급이 더디자 신임원에 따라 대학당국의 부심령 정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대학당국은 이에 대해 "신임원을 모아서 제일은행과는 통하는 과정과 행정에서의 밤금과/or이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 관계자는 "대학당국과은 행진의 시행착오는 이후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대내부를 모색하는 단계였던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학교와 정부를 위해 대학당국은 97년도의 대내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실시되는 신체검사일에 맞춰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증 발급과 필요한 소정장 서류를 보내 학생이나 나라는 대로 미리 밤금을 원료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대학당국은 은행의 밤금작업에 있어 업무절차개선에 대한 제

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이번 ID카드는 자본금 결승으로 이용하여 은행은 학생수 따른 구좌를 확보하게 된다. 대학당국은 은행과 맺은 계약으로 제92조에는 "학생증카드를 이용한 적립카드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액의 0.1%를 학교발전기금으로 하여 그 시기는 대학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밀린증상금이라는 학생참여공간속에 학생들의

제작에 따라 시험장 ID카드는 대학당국의 전신화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저출산 사전준비없이 일어난기식으로 대학당국의 행정은 끈질기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명수 기자

### 직원노동조합 침입한

## 학내 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본교 직원노동조합(직원노조)은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대학자치실현, 미래지향적인 윤리를 학원공동체 건설, 직원의 권익보장 및 자율성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0일 창립되었다.

노조가 결성된 후 88년 1월의 대학당국에 대학에선과 결신의 공개 등 9개조항을 요구한 첫번째 활동을 시작으로 2대 조합원들은 단일화정책과도 경쟁과 원용인자 첫번째 활동을 벌였으나 대학당국은 대학회피와 무관임을 으로써 청탁과 편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마이니같 무렵 대학당국은 조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때려 놓는 외래공작을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3,4대 노동조합이 취임하였다. 또한 92년 제4회 노동조합은 인사규정, 취업규칙, 원용인자개구정 및 직종증명, 장기근속자 포상규정, 비정임직원 임용제작 등을 확정하였다.

올해 6월 제7대 노동조합을 맞는 학법적 지위를 통한 조직의 확대, 노동 3기(단기집권, 단체교섭권, 단체동의권)를 이용한 학사행정참여, 근로복지증진을 민주화 대학환경체계 건설과 노조원 결속 및 의식강화를 통한 노조의 발달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재 직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노조원의 계속적 인 탈퇴현상이다. 칠립당시 321명의 조합원을 자랑했던 노조는 현재 35명중 14명(40%) 죠로 축소되었으며 탈퇴현상에 대한 방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교 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동안 대학원과 한국원인연대는 철학대학원에 대학으로 소집해온 학원 내 전시회에 대한 참여권, 재정권, 독립성 확보,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제도의 개선권이다.

이러한 기본적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운영에서 소외되어는 안되며, 조합원 모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만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온진기자

### 제6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점렬씨를 만나



## "사무직 노조원 탈퇴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

= 창립 당시 직원의 95%에서 현재 40%로 축소됨에 따라 활동영역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비롯한 주도한 입장을 잘 해왔으나 생각한다.  
-현재 노조원들은 지난 기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실력있고 배웠다는 사무직 직원의 탈퇴현상과 조합간부 대부분이 기능적이라는 점이다.  
-제4회 직원노동조합의 활동은?  
= 5년동안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을 잘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회로 풀려고 노력했으나, 찾을 부분은 많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찾았는데 있었으나 할 수 있다.  
-노조조합장을 찾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나 접두어로 느꼈던 점은?  
= 비조합원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참여하고 하지 않는다. 남이 대신 해결해 주길 바리는 직원들의 무시안한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정에 대한 생각은?  
= 어려운 질문입니다. 등록금 부정에 등을 돌릴 수도 없더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학당국도 별수없이 책임한다.  
-오는 7월에 출범될 제7회 노동조합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대회가 됐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로 도울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정에 대한 생각은?

= 어려운 질문입니다. 등록금 부정에 등을 돌릴 수도 없더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학당국도 별수없이 책임한다.

-온진기자에게 노조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 노조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 등록금 협상 ‘난항’… 새국면 전개

서울 과회장 7명 단식 진행, 4·5일 민주남부 찬반 총투표 예정

## 용인 계속되는 협상속에 5일 학내 결의대회



1만3천 외대인 요구안 관철과 민주남부 승리를 위한 서울캠퍼스 과회장 단식단이 지난 5월 29일(수) 붉은광장에서 농성을 들어갔다. 또한 서울캠퍼스는 이번주 4,5일 '2학기 민주 남부의 천반을 묻는 재학생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정이다.

## 5·31 교육개혁안 분쇄 결의 한총련, 교육부 항의 방문

## 한총련, 교육부 항의 방문

지난달 31일(금) 오후 4시부터 서울용산대에서 「망국적 5·31교  
육개혁안 분부와 부평전경 반교육  
정권 김영삼정권 태도를 위한 청년  
학생 결의대회」가 있었다.

“신한국당 부정선거자 체벌과 대선자금 유통을 위한 한국대학총동학회연합(총연합)은 구단장으로 활동하는 당시 서초구 지역대학생회연합(서초연대) 소속 대표였을 때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부 이날 집회는 5·31 교육개혁안이 밀조로운 11·14 되어는 날을 기해 열렸다.

이며 결국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라며 강도 있게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방국적 5·31 교육 개혁안 분쇄와 비정유권정권 탄도를 위한 투쟁 편성’을 통해 전남도의 입장 정명기(전남대 총장회생창고) 군은 “김영삼정권이 이 나라 학교를 미국에 팔았다는 지금의 현실에 백만청년이 삶봉분에서 서서 심판을 내리자”라고 결의를 밟았다.

이후 5월 30일 본격화부터 학생들이 거리선전을 위해 거리행진을 하던

도중 전경 2,500여명이 길을 막고  
서는 최루탄을 난사하며 기민적인  
폭력진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최  
루탄이 민주 주택가에 떨어져 건물  
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본교 학생 5명과  
관문대 학생 4명이 5·31 교육개혁  
안에 대한 한총련 항의서를 전달할  
때 교육부 항의방문을 하던 도중,  
본교 학생 5명이 연행됐다가 풀려

최우수리자

## 폭력시위 교사혐의로 본교 조태현군 구속

난 30일(수) 오후 12시경 본교  
방학처와 과학관 조성학(3)군  
과 3동 221호 '수 세종대에서  
던 동종현·연대집과 관련된  
세워 교사현'의 문구를 뒤졌다.  
같은 글은 조승호(1)군 구  
후 배우조정 교사현으로 3월  
(토) 수배를 받았다. 이후 1개  
월의 수배생활을 거친 5월 5일  
자진출走入로 1차 사찰은 받은  
경찰을 떠나였던 협회사실이  
한국속으로 사건을 저지하려  
그리던 중 2·3회에 걸친 조  
별다각이 발생된 것이다.  
제 3 조문은 강릉구치소에서 성

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신방과에서는 과회장  
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제 구속부심부를 질 거두고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이  
이어, 관련 비대위 위원장  
(3)군은 “학원자주를 위해  
하던 과회장의 구속을  
구성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후 공안정국을 형성하기 우  
선 운동을 편입하는 것”이라고

**외대사랑 토론회장으로** ..... 3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외대 사랑의  
과제는?

 <b>영성시대의 괴물 TV</b> ..... 6면 TV야말로 'X파일'?  <b>대 통 제 를 경 가 한 드</b> ..... '연 '풍요' 속 의 '번讼' 이 아 닌 '노력' 속 의 '풍요로움' 등장체 <b>전국을 강타하는 신공안경주 바람</b> ..... 8면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진복세력이	<b>15대 국회를 점쳐본다</b> ..... 9면 이제 곧 15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 이후 새해마다 국민의 요구를 듣고 우리는 국회가 되어나아 할뿐이다 <b>5·31 교계안 1주년을 맞아</b> ② 본교 제5차 교육과정 개정안 <b>10년</b>
--	---

# 1995회계년도 결 산 공 고

## 학교회계 자금운용계산서

(1995. 3. 1 ~ 1996. 2. 29)				(단위: 억 원)
주	수	금	액	
1. 기	기	기	수	설
1-1) 원	54,618,100	54,618,100	1) 원	58,677,248
1-2) 원	8,001,400	8,001,400	1) 원	8,315,018
1-3) 원	26,800,400	26,800,400	1) 원	3,996,720
1-4) 원	15,750,400	15,750,400	(2) 원	1,593,443
2. 수	수	수	수	설
2-1) 원	1,933,882	1,933,882	(3) 원	13,780
2-2) 원	90,567	90,567	(4) 원	362,970
2-3) 원	1,633,901	1,633,901	(5) 원	227,696
2-4) 원	88,877	88,877	(6) 원	25,185
2-5) 원	1,933,882	1,933,882	(7) 원	109,704
2-6) 원	88,877	88,877	(8) 원	864,297
3. 원	원	원	원	설
3-1) 원	7,622,387	7,622,387	(1) 원	41,965
3-2) 원	1,640,000	1,640,000	(2) 원	621,662
3-3) 원	3,325,310	3,325,310	(3) 원	55,440
3-4) 원	963,591	963,591	(4) 원	52,968
3-5) 원	963,591	963,591	(5) 원	206,510
3-6) 원	963,591	963,591	(6) 원	330,072
3-7) 원	963,591	963,591	(7) 원	1,334,544
4. 기	기	기	수	설
4-1) 원	308,730	308,730	(1) 원	836,743
4-2) 원	5,454,349	5,454,349	(2) 원	1,152,166
4-3) 원	1,998,268	1,998,268	(3) 원	260,534
4-4) 원	456,081	456,081	(7) 원	332,360
4-5) 원	5,454,349	5,454,349	(8) 원	274,000
4-6) 원	1,998,268	1,998,268	(9) 원	10,820,131
4-7) 원	456,081	456,081	(10) 원	1,011,191
4-8) 원	5,454,349	5,454,349	(11) 원	2,114,849
4-9) 원	1,998,268	1,998,268	(12) 원	214,117
4-10) 원	456,081	456,081	(13) 원	87,406
4-11) 원	5,454,349	5,454,349	(14) 원	66,050
4-12) 원	1,998,268	1,998,268	(15) 원	65,650
4-13) 원	456,081	456,081	(16) 원	65,650
4-14) 원	5,454,349	5,454,349	(17) 원	65,650
4-15) 원	1,998,268	1,998,268	(18) 원	13,174
4-16) 원	456,081	456,081	(19) 원	14,366
4-17) 원	5,454,349	5,454,349	(20) 원	694,096
4-18) 원	1,998,268	1,998,268	(21) 원	51,400
4-19) 원	456,081	456,081	(22) 원	4,953,532
4-20) 원	5,454,349	5,454,349	(23) 원	3,790,847
4-21) 원	1,998,268	1,998,268	(24) 원	238,685
5. 원	원	원	원	설
5-1) 원	28,650,319	28,650,319	(1) 원	4,053,579
5-2) 원	3,668,130	3,668,130	(2) 원	160,965
5-3) 원	2,890,000	2,890,000	(3) 원	99,572
5-4) 원	8,812,348	8,812,348	나) 원	740,967
5-5) 원	1,373,700	1,373,700	나) 원	1,373,700
5-6) 원	2,459,000	2,459,000	(30) 원	339,497
5-7) 원	22,979,074	22,979,074	(31) 원	3,646,404
5-8) 원	1,993,947	1,993,947	(32) 원	1,381,761
5-9) 원	16,169,641	16,169,641	(33) 원	2,547,643
5-10) 원	16,169,641	16,169,641	(34) 원	21,849,636
5-11) 원	87,521,567	87,521,567	(35) 원	87,521,567

대 차 대 조 표				(1996. 2. 29 현재)					
인하회계 및 학교비		부		세					
구	분	법	고	구	분	법	고	회	
1.총	부	자	산	612,316	23,722,325	1.총	부	자	
1.1	현	금	세	27,462	21,843,686	1.1	세	금	3,095
1.2	현	금	부	548,076	955,472	2.4	세	금	22,945
3.자	기	금	세	13,355	52,000	3.4	세	금	360,000
4.국	장	금	세	0	299	4.4	세	금	40,253
5.미	부	금	세	23,423	0	4.5	부	금	488,392
6.신	금	부	세	0	399,497	5.5	경	부	세
						5.5	경	부	세
						5.5	경	부	세
						5.5	경	부	세
II.부	부	부	부	51,036,651	8,657,087	1.기	기	기	0
1.총	부	부	부	2,731	87,866	2.기	기	기	3,538,398
2.총	부	부	부	2,196,500	0	3.4	세	금	152,000
3.지	부	부	부	580	274,000	4.4	부	금	11,900
4.기	부	부	부	46,823,696	0	5.4	세	금	1,621,105
5.부	부	부	부	0	2,390,129	6.기	기	기	2,499,537
6.기	부	부	부	1,986,500	2,585,000	7.기	기	기	27,604,261
7.부	부	부	부	5,950,750	73,540,620	8.기	기	기	51,088,181
1.보	부	부	부	2,069,147	6,601,605	9.기	기	기	78,116,017
2.전	부	부	부	3,892,474	33,374,198	10.기	기	기	314,015,225
3.기	부	부	부	0	1,348,197	11.기	기	기	86,771,111
4.기	부	부	부	0	2,000,000	12.기	기	기	25,062,261
5.비	부	부	부	27,260	2,904,269	13.기	기	기	16,824,696
6.자	부	부	부	0	2,853,463	14.기	기	기	0
7.보	부	부	부	0	5,183,508	15.기	기	기	0
8.학	부	부	부	0	4,521,600	16.기	기	기	0
9.기	부	부	부	0	6,429,610	17.기	기	기	0
10.부	부	부	부	1,839	99,074	18.기	기	기	0
						19.기	기	기	0
						20.기	기	기	0
						21.기	기	기	0
						22.기	기	기	0
						23.기	기	기	0
						24.기	기	기	0
						25.기	기	기	0
						26.기	기	기	0
						27.기	기	기	0
						28.기	기	기	0
						29.기	기	기	0
						30.기	기	기	0
						31.기	기	기	0
						32.기	기	기	0
						33.기	기	기	0
						34.기	기	기	0
						35.기	기	기	0
						36.기	기	기	0
						37.기	기	기	0
						38.기	기	기	0
						39.기	기	기	0
						40.기	기	기	0
						41.기	기	기	0
						42.기	기	기	0
						43.기	기	기	0
						44.기	기	기	0
						45.기	기	기	0
						46.기	기	기	0
						47.기	기	기	0
						48.기	기	기	0
						49.기	기	기	0
						50.기	기	기	0
						51.기	기	기	0
						52.기	기	기	0
						53.기	기	기	0
						54.기	기	기	0
						55.기	기	기	0
						56.기	기	기	0
						57.기	기	기	0
						58.기	기	기	0
						59.기	기	기	0
						60.기	기	기	0
						61.기	기	기	0
						62.기	기	기	0
						63.기	기	기	0
						64.기	기	기	0
						65.기	기	기	0
						66.기	기	기	0
						67.기	기	기	0
						68.기	기	기	0
						69.기	기	기	0
						70.기	기	기	0
						71.기	기	기	0
						72.기	기	기	0
						73.기	기	기	0
						74.기	기	기	0
						75.기	기	기	0
						76.기	기	기	0
						77.기	기	기	0
						78.기	기	기	0
						79.기	기	기	0
						80.기	기	기	0
						81.기	기	기	0
						82.기	기	기	0
						83.기	기	기	0
						84.기	기	기	0
						85.기	기	기	0
						86.기	기	기	0
						87.기	기	기	0
						88.기	기	기	0
						89.기	기	기	0
						90.기	기	기	0
						91.기	기	기	0
						92.기	기	기	0
						93.기	기	기	0
						94.기	기	기	0
						95.기	기	기	0
						96.기	기	기	0
						97.기	기	기	0
						98.기	기	기	0
						99.기	기	기	0
						100.기	기	기	0
						101.기	기	기	0
						102.기	기	기	0
						103.기	기	기	0
						104.기	기	기	0
						105.기	기	기	0
						106.기	기	기	0
						107.기	기	기	0
						108.기	기	기	0
						109.기	기	기	0
						110.기	기	기	0
						111.기	기	기	0
						112.기	기	기	0
						113.기	기	기	0
						114.기	기	기	0
						115.기	기	기	0
						116.기	기	기	0
						117.기	기	기	0
						118.기	기	기	0
						119.기	기	기	0
						120.기	기	기	0
						121.기	기	기	0
						122.기	기	기	0
						123.기	기	기	0
						124.기	기	기	0
						125.기	기	기	0
						126.기	기	기	0
						127.기	기	기	0
						128.기	기	기	0
						129.기	기	기	0
						130.기	기	기	0
						131.기	기	기	0
						132.기	기	기	0
						133.기	기	기	0
						134.기	기	기	0
						135.기	기	기	0
						136.기	기	기	0
						137.기	기	기	0
						138.기	기	기	0
						139.기	기	기	0
						140.기	기	기	0
						141.기	기	기	0
						142.기	기	기	0
						143.기	기	기	0
						144.기	기	기	0
						145.기	기	기	0
						146.기	기	기	0
						147.기	기	기	0
						148.기	기	기	0
						149.기	기	기	0
						150.기	기	기	0
						151.기	기	기	0
						152.기	기	기	0
						153.기	기	기	0
						154.기	기	기	0
						155.기	기	기	0
						156.기	기	기	0
						157.기	기	기	0
						158.기	기	기	0
						159.기	기	기	0
						160.기	기	기	0
						161.기	기	기	0
						162.기	기	기	0
						163.기	기	기	0
						164.기	기	기	0
						165.기	기	기	0
						166.기	기	기	0
						167.기	기	기	0
						168.기	기	기	0
						169.기	기	기	0
						170.기	기	기	0
						171.기	기	기	0
						172.기	기	기	0
						173.기	기	기	0
						174.기	기	기	0
						175.기	기	기	0
						176.기	기	기	0
						177.기	기	기	0
						178.기	기	기	0
						179.기	기	기	0
						180.기	기	기	0
						181.기	기	기	0
						182.기	기	기	0
						183.기	기	기	0
						184.기	기	기	0
						185.기	기	기	0
						186.기	기	기	0
						187.기	기	기	0
						188.기	기	기	0
						189.기	기	기	0

자산증계

1996. 5. 1.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이사장 이숙경

〈감사의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1996회계년도 결산을 감사한 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재무상태와 학교회계(기성회 회계 포함)의 자금운용 내용이 기업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이종익  
감사 서정의

